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그리스

Hellenic Republic

2020년 12월 30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그리스
아테네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² 	인구 10.7백 만명 (2020 ^f)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1,700억 달러 (2020 ^f) 	1인당GDP 18,168달러 (2020 ^f) 	통화단위 Euro (EUR) 	환율(U\$기준) 0.88 (2020 ^f) 

-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한반도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국토와 10.7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선박을 이용한 해운업과 고대 문화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이 발전하였으나, 식료품 가공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임.
- 2010년에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유로존,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 2017~19년에는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7월 신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정치,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1. 4. 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94), 투자보장협정('95), 항공협정('96), 이중과세방지협정('98), 관광협정('06), 해상협정('06), 경제협력협정('10), 군사기밀정보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1,627,644	978,378	1,639,55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수 입	446,494	604,311	528,177	석유제품, 기타금속광물, 기호식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9건, 16,89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0.2	1.5	1.9	1.9	-9.5
소비자물가상승률	0.0	1.1	0.8	0.5	-0.6
재정수지/GDP	0.6	1.0	0.9	0.6	-9.0

자료: IMF, EIU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와 관광 부문의 타격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 과중한 재정적자로 2010년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하며 역성장을 거듭하던 그리스 경제는 2017년부터 총수출, 총투자, 민간소비의 동반 증가로 국가채무위기에서 벗어나며 2017~19년 연속 1%대 중·후반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와 관광 부문의 타격으로 거의 -10%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IMF에 따르면 그리스의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했으며, 2020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9.5%로 추정됨. 한편, 그리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분기별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1분기 0.4%, 2분기 -14.2%, 3분기 -11.7%를 기록하였음.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비지출이 14.0%, 총고정자본투자가 0.4%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국내소비 둔화와 관광산업의 타격(전년동기 대비 관광수입액은 1~7월 86%, 숙박업 매출은 1~8월 80%, 그리스 공항의 항공기 도착 건수는 1~8월 74% 각각 감소)이 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다만, 2020년 1~9월 공업생산은 약 3.6%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2021~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조성된 EU 경제회복기금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펀드'(NGEU)의 지원과 투자,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에 따라 5%대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그리스의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1971~2031년)



자료: IHS Markit

국내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책 실시로 2020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 그리스 정부는 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무원 수의 25% 감축, 공공 부문 임금의 30% 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 재정정책의 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인 결과 2016~19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9.0%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그리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기존에 EU와 합의된 2020년의 재정수지 조건(GDP 대비 최소 3.5%의 흑자 유지)의 수정을 요청하여 EU의 승인을 얻은 바 있음.
- 그리스는 2010년에 시작된 EU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며 기초재정수지를 2018~22년까지 GDP 대비 최소 3.5%, 이후 GDP 대비 최소 2.2% 흑자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음. 한편,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는 2018년에는 GDP 대비 4.4%의 흑자, 2019년에도 GDP 대비 4.5%의 흑자를 기록하여 EU와의 합의 조건을 충족하였음.

국제유가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기록

- 그리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가 회복된 2017~19년에도 노동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0.5~1.1%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유 국제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0.6%의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3,846	-3,846	-6,182	-3,051	-7,704
경상수지/GDP	-2.2	-2.1	-3.4	-1.6	-4.5
상 품 수 지	-19,875	-22,398	-26,571	-25,564	-18,857
상 품 수 출	27,237	31,666	38,248	36,313	31,579
상 품 수 입	47,112	54,063	64,819	61,877	50,436
외 환 보 유 액	1,917	2,274	2,115	2,142	3,663
총 외 채 잔 액	455,100	486,100	474,000	500,000	531,061
총외채잔액/GDP	257.9	269.7	256.6	266.7	312.3
D.S.R.	21.9	28.8	16.0	32.5	17.5

자료: IMF, EIU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 그리스는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광 부문의 타격으로 GDP 규모와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동반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도인 -1.6%에서 -4.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주요 수입품은 원유)은 국제유가의 대폭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1~10월 수출은 12.7% 감소(2분기에 32.1%으로 크게 감소), 수입은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부문의 급격한 침체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브렌트유 국제시장가격(2019년 4분기~2021년 4분기)

유가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달러/배럴	63.38	50.42	29.38	42.97	41.20	42.67	44.25	48.33	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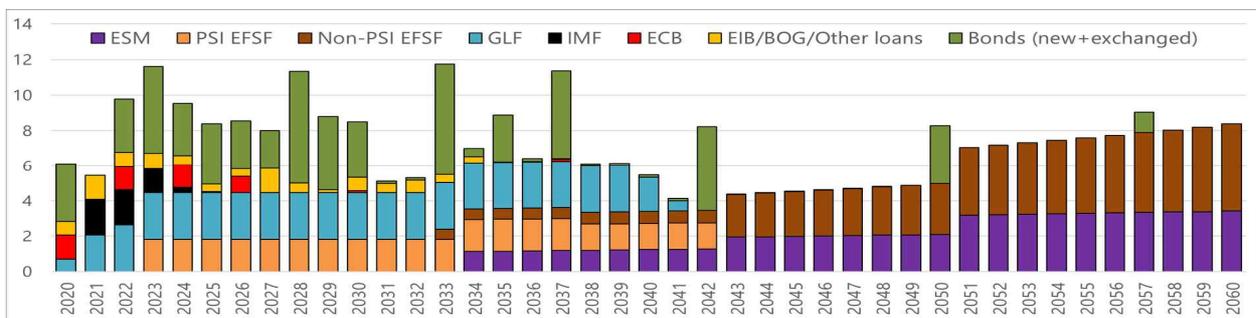
자료: IHS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공적채무 비중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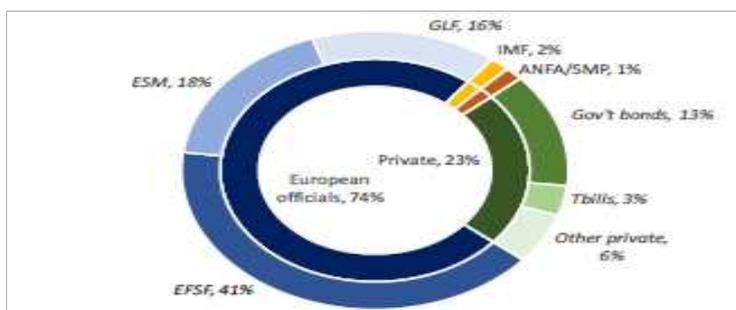
- 2020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GDP 규모의 감소 영향으로 2019년의 266.7%에서 312.3%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IMF는 같은 이유로 그리스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도 2020년 GDP 대비 208%에 이를 것이며, 2021년에는 199%로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외채상환 스케줄에 따른 외채원리금 상환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32.5%에서 2020년에는 17.5%로 하락하였음. 다만,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월평균수입액의 0.6개월분에 불과한 규모로 추정됨.
- 현재의 외채상환 스케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그리스의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IMF, Moody's 등은 그리스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높은 편이나, 상환기간이 장기인 점과 EU 기금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리스는 2010년부터 진행된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 프로그램으로 3,000억 유로를 지원받았음. 그리스 외채의 대부분은 EU 긴급 지원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채권자별로는 EFSF(유럽재정안정기금)과 이를 대체하여 설립된 ESM(유럽안정화기구) 1,680억 유로, 유로존 정부 530억 유로, 민간 투자자 340억 유로, 유럽중앙은행 130억 유로, IMF 1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 그리스 외채 상환 스케줄(2020~2060)(단위: %)



자료: IMF

[그림 3] 그리스 외채구조



자료: IMF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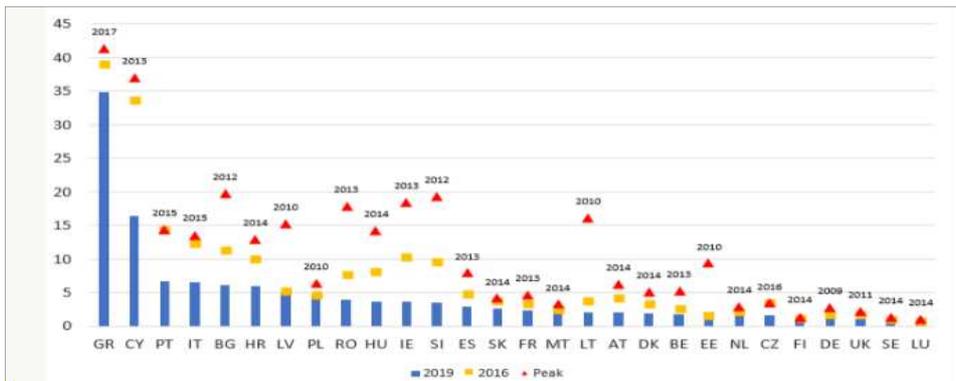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 지속

- 정유, 식품가공 등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하고,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관광, 해운 등 서비스 부문이 GDP의 약 80%를 점유함에 따라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정유 부문의 원료(원유), 에너지 자원, 다수의 제조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2016~20년 평균 2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부실채권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융 부문의 취약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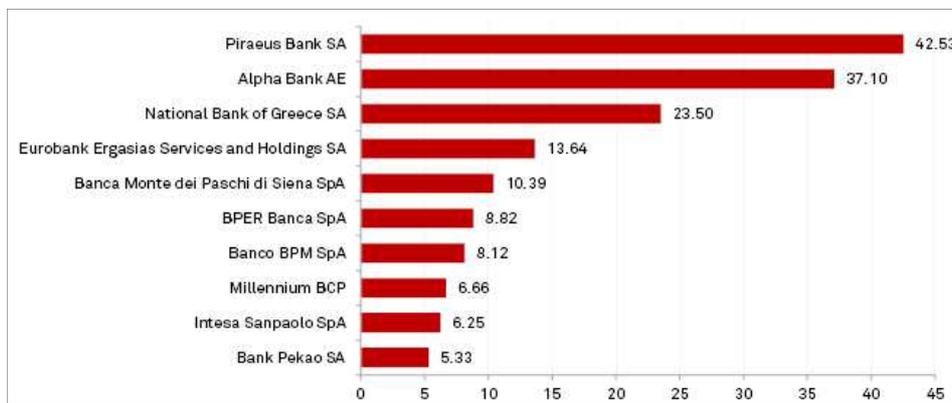
-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의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2020년 기준 금융권의 부실채권(총액 7,120억 유로) 비중이 전체 대출의 30%를 상회하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2020년 2분기 기준 유럽 지역 은행 중 부실채권 비중 상위 4대 은행(Alpha Bank, Eurobank Ergasias, National Bank of Greece, Piraeus Bank)이 모두 그리스 은행들임. 한편, 그리스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 안정펀드(Hellenic Financial Stability Fund)는 National Bank of Greece의 40.4%, Piraeus Bank의 26.4%, Alpha Bank의 11.1%, Eurobank의 2.4% 지분을 보유(2019년)하고 있음.

[그림 4] 2019년 말 기준 유럽 각국의 은행 부실채권 비중(%)



자료: <https://www.bruegel.org>

[그림 5] 2020년 2분기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



자료: <https://www.spglobal.com>

성장잠재력

다수의 고대 문명 유산으로 관광 부문의 발전 잠재력 보유

- 그리스는 다수의 고대 문명 유산을 보유하여 관광업이 GDP의 20%(연관 부문을 포함할 경우 25~30%로 추정)를 점유하고 있음. 관광업은 숙박업, 외식업, 교통 인프라 산업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종식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그리스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그리스를 찾은 관광객 수는 그리스 전체 인구의 3배에 이르는 3,200만 명으로 추산됨.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물류 및 에너지 요충지에 위치

- 그리스의 주요 항만들은 동지중해에 위치하여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품 운송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유럽과 중국의 투자를 통해 주요 항만(피레우스 항, 데살로니카 항)들의 터미널이 현대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그리스 항만과 중·동부 유럽 지역을 잇는 운송 인프라 건설을 통해 육상·해상을 연결하는 물류망이 구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림 6] 그리스와 중동부 유럽 교통망



자료: www.oboreurope.com/en/greece-bri

- 그리스는 2020년 10월 완공된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전에서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TANAP (Trans-Anatolian Pipeline)과 TAP (Trans Adriatic Pipeline)의 연결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됨.

정책성과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세제 개편, 투자유치 정책, 행정개혁 등 추진

- 미초타키스 총리는 2019년 취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4%로 인하하였고, 2020년에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이익배당세, 자본취득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의 그리스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7%의 단일 소득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 회원국 연금생활자들의 그리스 이주를 통한 세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규제 축소, 행정 효율성 개선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산업 부문에서의 불공정 경쟁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OECD는 2020년 7월 발표된 그리스 경제보고서를 통해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18년 9월 발표된 '미래발전전략'과 EU 기금을 활용한 '2014~2020 국가 인프라 발전전략', '2014~2020 전자정부 정책', '국가 디지털 환경 개선 정책(2016-2021)' 등을 통해 전자정부를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EU 지원 등을 통해 대응

- 그리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68억 유로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EU로부터 315억 유로(GDP의 약 17%)를 지원받았음.
- 동 계획에 따라 기업에 대한 21억 유로의 유동성 공급,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6개월의 사회보험 기여금 지원 등의 고용유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유예, 코로나19 관련 관광 및 운송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도서 지역의 통합재산세 폐지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지원되고 있음.
- EU 차원에서는 2020년 5월 조성된 NGEU(넥스트 제너레이션 EU)의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위험 완화 긴급 지원 프로그램(SURE), 유럽안정화기금(ESM)의 코로나19 대출 등에 따른 자금이 그리스에 대해 지원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여행 제한, 공공활동 제한,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적절하게 취해진 결과 확진자 발생률과 치명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그리스 정부의 방역 대응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2020년 12월 29일(12:35 GMT) 현재 그리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35,931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72명임. 한편, 인구 100만 명 당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수는 각각 13,073명과 4,672명으로, 유럽 48개 국가/지역 중 각각 44위 및 28위 수준임.
- 그리스 정부는 2020년 3월 말~5월 초 1차 봉쇄조치 시행에 이어 11월 초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장례식 참석, 거주지 근처 운동 등 외에 통행을 제한하는 2차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정치안정

2019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 및 2017년 이후 체제안정성 지수 개선 추세

- 현재 그리스 의회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제1당(신민주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점유하여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안정적 정부 구성을 통해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세제 개편, 재정건전성 강화, 행정 개혁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대규모 시위 감소 등의 영향으로 IHS에서 평가하는 체제안정성지수(Country Strategic Risk)에서 2017년 이후 안정된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

법원, 2020년 10월 최대 파시즘계 정당 범죄단체로 규정, 향후 활동 중단 전망

- 2020년 10월 7일 그리스 법원은 나치즘을 추종하는 극우 정당 '황금새벽당'(Golden Dawn) 창립자이자 현 당수인 니코스 미칼롤리아코스를 비롯하여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직 의원 18명의 범죄조직 운영 또는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황금새벽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였음.
- 1980년대 후반에 그리스에서 결성되었으며 전국적인 지역망을 갖춘 황금새벽당은 금융 위기 여파로 고강도 긴축 재정이 시행되던 와중에 시행된 2012년 총선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겨 7%의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18석을 확보하며 파란을 일으켰음.
- 그러나 이후 그리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좌파 정치인, 노조 활동가, 동성애자 등을 대상으로 살인을 포함한 정치 테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칼롤리아코스 당수를 비롯해 국회의원을 지낸 지도부 인사들이 범죄조직 운영·가담 등 혐의로 기소되어 13년 형이 선고되었음.

사회안정

중동·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유입으로 사회불안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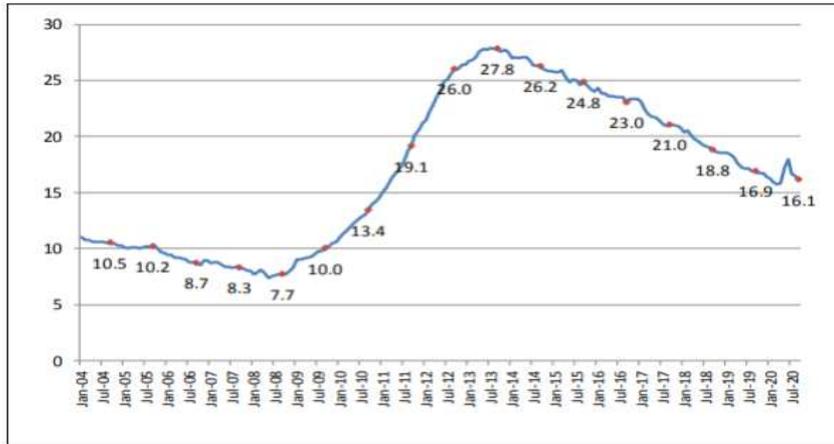
- 중동·아프리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리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중동·아프리카로부터 다수의 난민들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난민 캠프에는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난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2020년 9월에는 최대 난민 캠프가 위치한 레스보스 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1만 여명 이상의 난민이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주거를 원하는 난민들의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사회불안 잠재

-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2020년 9월 기준 16.1%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27.8%까지 이르렀던 실업률은 이후 경제가 안정되며 2019년 16.9%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 비중은 15~24세 33%, 24~33세 21.3%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안정

[그림 7] 그리스의 실업률 추이(2004~20년, %)



자료: 그리스 통계청

[표 2] 그리스의 연령대별 실업률(2015~20년, 매년 9월 기준, %)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24세	50.6	45.9	41.5	38.7	35.8	33.0
25~33세	31.3	30.4	25.1	24.2	23.2	21.3
35~44세	22.9	19.9	19.2	17.0	14.5	14.8
45~54세	19.7	19.0	16.9	15.6	13.9	12.9
55~64세	18.9	18.9	17.7	14.8	13.8	11.8
65~74세	10.3	13.4	12.7	11.8	9.3	9.2
전체	24.8	23.0	21.0	18.8	16.9	16.1

자료: 그리스 통계청

국제관계

터키의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 및 군사 훈련 등으로 그리스-터키 갈등 재점화

- 그리스와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리스 점령 및 지배라는 역사로 인해 뿌리 깊은 적대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그리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키프로스 섬 인근 동지중해에서 2020년 8월부터 진행된 터키의 천연가스 탐사로 인해 양국간 분쟁이 재점화되었음.
- 2019년 친그리스계인 키프로스 정부가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등 다국적 에너지기업들과 함께 동지중해 해역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자, 2020년 8월 터키는 친터키 지역인 북키프로스의 연안 에너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키프로스 섬 인근에 시추선 '오루츠 레이스'를 투입해 천연가스 탐사를 실시하였음.
- '오루츠 레이스'의 탐사 해역은 그리스 영토인 카스텔로리조 섬과 키프로스 섬 인근 지역으로 키프로스-그리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그리스와 터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¹⁾
- 이에 대응하여 8월 그리스의 EU 동료 회원국들이자 지중해 연안국들인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리스와 동지중해 지역에서 합동 해군, 공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터키에 무력 시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터키는 9월 북키프로스군과 동지중해 지역에서 해군 훈련을 감행하는 등 동지중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그림 8] 그리스와 터키의 동지중해 영유권 분쟁 해역



1) 2010년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동지중해에는 석유 최소 17억 배럴과 천연가스 3조 4546억㎥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됨.

국제관계

중국, 피레우스 항만 인수 등을 통해 그리스를 일대일로 유럽 지역 전초기지로 활용 추진

- 중국의 국영 해운사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중국원양해운(COSCO)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던 2010년 피레우스 항에 2억 달러 규모의 항만 물류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며 35년간의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며, 2016년에는 피레우스 항의 지분 67%를 인수하였음.
- 중국의 운영권 인수 후 피레우스 항의 항만물동량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세계 93위에서 2018년 세계 32위로 증가), 유럽 제6위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발전하였음. 2019년의 물동량은 565만 TEU로 2018년의 490만 TEU에 비해 15% 증가하였음.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화물운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중국과 유럽 간 연계 물동량이 피레우스 항만 전체 물동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스 항만 개발을 통해 발칸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거쳐 북부 발트해 연안까지 중·동부 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운송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리스는 중국 정부와 2018년 8월 양국간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그리스 방문과 2020년 9월의 양국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외에도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전력, 발전소, 통신, 물류, 에너지, 관광 등 그리스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그리스가 일대일로의 유럽 내 전초기지가 되어 궁극적으로 유럽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교두보 역할을 할 우려의 시선도 EU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외채원리금 상환 지속

-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로존, IMF 등으로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외채원리금 상환을 계속하고 있음.
- 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평가에서는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2020년 208.2%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9년에는 152.9%(baselin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하락과 정부의 위기 대응 재정집행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29년에는 250%(worst case 가정)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²⁾
- 미 수은,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그리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2013.01)	0등급 (2012.01)
Moody's	Ba3 (2020.11)	B1 (2019.03)
Fitch	BB (2020.7)	BB- (2019.08)

Moody's 등급 상향 조정 등 긍정적 평가

- Moody's는 2020년 11월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 기업 친화적 정책, EU의 안정적 지원 등을 근거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하였음.
- Fitch도 2020년 1월 안정적 외채상환능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정치 안정 등을 근거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한 바 있음. 동년 4월에는 등급을 유지하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감안하여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으며, 7월에도 기존 등급 및 전망을 유지하였음.

2) IMF, Country Report - Greece (November 2020) No.20/308.

- 그리스 경제는 수출 및 투자,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7~19년에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수출과 소비가 동반 부진하여 -9.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7월 선거에서 신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개혁, 세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실업률은 16.1%로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동지중해에서의 천연가스 탐사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터키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하며 운송·물류, 전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공적채무 비중이 높은 편이나, EU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외채상환능력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